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청명보검으로 강호에 군림하던 무당파의 수제자 리무바이. 그는 영웅의 상징 청명보검을 내놓으며 강호에서 몸을 댔다. 정의와 신의의 이름으로 곁에 묻힌 피의자였다. 이제 그 모든 것에 의미와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 보검을 새로운 강호 영웅을 꿈꾸는 여인 용(龍)이 탐낸다. 8세 때 이미 스승을 속였고 사랑하는 남자 호(虎)마저 배신하며 약심을 키워 가는 그녀는, 강호 영광의 상징 청명 보검에 강한 애착을 보인다. 리무바이는 그런 그녀에게서 인간적 가능성을 직감하고 거들타이른다. "마음의 진실을 회복해야 보검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잃는 리무바이를 보면서 비로소 마음에 절여 있는 거짓의 독을 절감한 그녀. 사랑하는 호(虎)를 찾아가 언젠가 그가 들려준 전설대로 진실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며 산 아래로 몸을 던진다. 한편 숨을 몰아쉬는 리무바이를 안고 그의 사랑 수련은 눈물로 속삭인다. "마지막 숨을 너를 위해

는 그 본질상 소유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시와 소통의 용법일 뿐. 그러나 '언어에 집착하지 않음'과 '언어의 배신'은 다르다. 언어에 간헐 일은 아니지만, 언어를 통해 확보하고 가꾸어 가려는 진실을 놓쳐서도 안 된다. '평생 당신을 위하여'라 '공정하게 하겠소'라는 말에는 상황에 따라 변신하기 쉬운 아비한 마음을 다잡아 두려는 다짐과 약속의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 변하기 마련인 상황은 언어를 바꾸게 하지만, 인간은 또한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소중한 가치를 언어를 통해 가꾸어 가려 한다. 언어에 집착하여 진실을 놓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진실을 가꾸어 가는 언어의 규정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강호의 영웅을 꿈꾸는 야심가들은 언어 배신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진실과 사랑과 신의의 약속과 다짐을 담았던 언어들을 야심을 위해 외면하거나 바꾼다. 언어 배신 행위를 그 특출한 무공(武功)과 논리에 의해 그럴듯하게 정당화시키면서,

진실의 꽃 피어나는 때

쓰지 말고 당신의 해탈을 위해 써요" 동양인의 사랑, 그 절제의 미학을 시종 잘 담아내는 양자경의 연구도 일품이다. - 무형 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흔든 '와호장룡' 강호(세속, 경쟁의 시장)는 언제나 영웅의 꿈과 전설들로 활기 넘친다. 같은 듯 새로운 무공(武功)으로 강호를 제패하려는 이들의 눈부신 무용담들이 세인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적들의 모든 공격과 무기를 일거에 제압해 버리는 보검(寶劍)된 논리와 상품성 있는 지식을 지니기 위해, 강호에 군림하려는 이들은 집념을 불태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절세의 무공과 보검으로 강호에 이름을 떨치게 될 즈음, 그를 아꼈던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 우애와 사랑, 신의와 존경으로 맺어졌던 인연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멀어져 간다. 언어에는 실체가 없다. '박 아무개'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리된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이런 저런 심리 현상과 신체 현상들의 인연 복합체를 지칭하는 언어 용법일 뿐이다. 그러기에 언어

거짓 물든 언행 버리면 마음의 진실 회복된다

그리하여 언어 모독의 악취가 진동할 즈음, 초심의 간절한 순수성이 몽개진 땅을 기만하는 가시덤불이 채울 때, 그를 키우고 지켜보았던 소중한 마음들은 허를 차며 멀어져간다. 한국 정치 악업의 정체를 언어 배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언어의 정의(定義)와 용법을 교묘하게 바꾸어 가며 자신의 탐욕과 거짓을 위장하는 정치인들의 언어 배신 행위가, 우리 사회를 심각한 불신과 냉소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언어 신뢰, 언어의 문화적 구성력을 뿌리 채 흔들어 놓는 뻔뻔한 야심들이 어지럽게 활판한다. 그 현란한 배신의 무공, 언어 기만의 검법에 이제 그 누가 갈채를 보내랴. 민심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다. '마음의 진실을 회복하라. 그래야 보검의 주인 된다.' 용처럼, 천길 신발으로 거기에 물든 자신을 던져라. 강호 영웅의 야심에 의해 꺾어진 진실의 꽃은 그럴 때 기적처럼 되살아나리. ■ 울산대 철학교 교수

“경전 읽기는 가행정진의 밑거름”



참불자의 길

참선④ -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

언어나 문자로는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이것이 선불교의 대표적 특징이다. 하지만 불립문자를 '선에는 문자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있어 선(禪)과 교(敎)의 갈등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모 선원에서 동안거에 참여한 한 불자는 "화두만 열심히 참구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되지 경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반문한다. 경전을 읽으면 분별심이 생겨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수행의 현장에서 만난 불자들은 "경전을 읽지 말라"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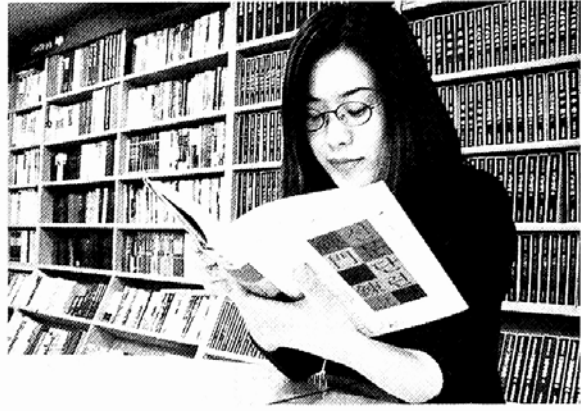
참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들은 수행자가 경전이나 어록을 읽지 않는다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전과 선어록은 맹인의 지팡이와 같이 수행에 필수적인 이야기다. 제대로 알고 수

행하지는 차원에서 몇몇 스님들을 통해 '불립문자'의 참 의미를 살펴 본다.

성본(동국대 교수) 스님은 그 동안 출간한 여러 선서를 통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불법을 알고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록의 가르침이 필요 없

“문자 필요없다” 일부 수행자 잘못된 인식

을 때까지 언제나 옆에 두고 읽고 배워서 올바른 수행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스님은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구축된 우리들 각자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자성이 부처인 그 사실과 성불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



참선 수행자에게 있어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경전읽기는 흔들림없는 가행정진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을 갖고 그 수행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고 의심이 없어야 부동(不動)의 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스스로가 불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근거와 철저한 신심을 가져야 하는데 경전이

그 뼈대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의 현실을 살펴보면 불자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게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불교기초교리나 예절 등에 대한 강의는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선불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단체나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수시로 수행을 점검해 주고 궁금증

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스승이 드물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참선 실수는 물론 선어록 등의 강의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불선원의 주지 상산 스님도 "불자들에게 참선의 자세나 화두 참구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선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 설하신 여러 경전을 비롯한 조사들의 어록을 통하여 불교의 정신과 선사상을 가르친 후 실수에 들어가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불립문자 진리의 세계는 믿는 마음이 철저히 해야 능히 그 속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불립문자'의 본래 의미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난다는 말이다. 즉 경문이나 스승의 가르침등 문자는 성불의 방편으로 보인것으로 깨달음 그 자체는 문자를 떠나 참된 지혜에 몰입하여 스스로 체험한다는 뜻이다. 결국 선 수행하는 불자들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스스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그러한 자각적인 참된 자아를 일상생활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선불교의 참된 정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 수행이 정신집중이나 일시적으로 마음의 번뇌를 끊는 명상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김중근 기자



“그대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답한다고 들었네. 그런데 이것은 그대가 총명하고 영리하여 뜻으로 알아차리고 식(識)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이제 부모가 그대를 낳기 이전의 일을 한 마디 말해보라.”(父母未生時試道一句) 향엄은 한참 궁리한 후 몇 마디 대답을 했으나 위산은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다. 마침내 향엄이 가르침을 부탁했으나 위산은, “내가 만약 그대에게 말해준다면 그대는 뒷날 나를 욕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것일 뿐 결코 그대의 일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처소로 돌아온 향엄은 평소 봐왔던 서적을 뒤져서 대답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를 못하자 이제껏 보던 서적을 몽땅 불태워버리고는, 불립 배우기는 포기하고 떠들

불교의 철학화 극복위해 禪 등장

44 선과 언어 (8)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이나 돼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위산을 하직하고 남양으로 건너가 혜충국사의 유적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향엄은 풀을 베다가 우연히 기와 조각을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혀 내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았다. 위산이 제시한 '부모가 그대를 낳기 이전의 일을 말하라'는 화두는 향엄이 견성하는 직접적 계기로 기능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화두는 향엄의 사랑분별을 부수는 파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견성한 뒤의 향엄에게는 이 화두와 기와 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동일한 바탕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이전의 향엄에게 이 화두는 일차적으로 파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어로서의 화두는 파사와 현정의 기

능을 수행하여, 언어의 테두리를 넘어서 언어가 나오는 바탕인 자성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즉 선에서 언어는 선을 알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요 통로인 것이다. 이제 선과 언어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선에서 언어의 쓰임은 ①선체함을 묘사하고 설명하여 듣는 사람에게 선체함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고 동일한 체험으로 이끌어 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②화두와 같이 언어를, 선체함을 가져오는 직접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쓰임 이외에 선을 이론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선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선학(禪學)의 가능한

역할은 이 둘에 관하여 올바른 해설을 하는 것이며, 올바른 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자기부정적 입장(미조의 말처럼, 말을 듣고 자신의 견해가 바로 잡히면 될 뿐, 말은 바로 있어야 한다는 견지해야 한다. 즉 선학은 방편 설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의 공부에 기여해야 하며, 이론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오히려 선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체함에 관한 어떤 설명도 체할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이론적 체계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학이기는 철학이론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교가 철학으로 변질되어 종교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 등장했던 맥락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화 포교학당

2001학년도 불교복지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개설 강좌

Table with 4 columns: 과 정, 기 간, 교육 실시, 등록금. Rows include 3-year Buddhist Studies, 2-year Buddhist Social Work, 6-month Buddhist Sports, and 2-year Buddhist Nursing.

■ 구비서류 및 원서마감(선착순)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사진3매(반명함판) 마감일 : 2월 28일(수요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 입학식

3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보건복지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대표전화 051-462-5670 팩스 : 462-5671

명예학장 성오스님 학장 예도스님

현대 웨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1,584만원 (23평형) 350만원에



보통급 안정성보장 - LG화재 (주) 상환성 보험증권 발행

■ 특별가입 내역

Table with 5 columns: 평형, 총분양가, 특별가, 사용일수, 객실수. Row: 23평형, 1,584만원, 350만원, 30박, 477실.

■ 특별가입 혜택

- 2000년 스키장 리프트 무료 / 할인권 증정
청평, 설악 VIP 초대권 증정
회원 입회비 / 연회비 평생 면제
공동 명의 구입 가능(카드 추가 발급)
10년간 정회원 이용
10년 만기후 전액 환불 및 연장 가능
양도 / 양수 / 매매 / 상속 가능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 (12-18개월)

■ 제주 2박 3일 무료이용권 증정 (항공권 별도)

■ 온라인/카드 결제 안내

-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금주: 주) 현대웨미리리조트

전국 23곳 시용 현황 설악권/설악,평창,알프스 경기권/양평,용문산,가평,청평,인천,중부권/천안,도고,충주,남부권/울산,남원,지리산,구례,순천,해남,경주,부산,제주권/서귀포,해위권/사이판

(주) 현대 웨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문의 안내 02) 3444-7580